

5. 신탁중앙회 현황, 문제점, 대응방안

□ '05년말 현재 중앙회 총 임직원은 385명 (임원 21명, 직원 364명)

○ 조직 : 5부, 2실, 1원, 12개 지역본부

○ 지배구조 : 총회, 대의원회, 이사회, 감사위원회

* 집행임원 3명(중앙회장, 신용·공제 대표, 감독·검사 이사)이 상근

□ '05년말 현재 신탁중앙회는 조합의 자금을 예치받아 운용하는
신용사업에서 **5,623억원의 누적결손금을 보유**

○ 중앙회의 누적결손금은 舊 연합회의 이월손실, 유가증권
운용손실 및 기타 부실대출 등에 주로 기인

- '97년 이전 舊 연합회 이월손실 : △1,076억원

- 유가증권 등 자산운용 손실(결손금 기회비용 포함) : △1,599억원

- IMF위기 이후 단위신탁 대출 부실화, 미수금 등 무수익성
자산 기회비용 등 : △2,948억원

□ 감독당국은 그동안 신탁중앙회의 손실은 기본적으로 경영
실패에 기인한 것이므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

○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책임규명과 함께 경영개선명령
등을 통해 신탁측의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를 추진

<경영개선명령 주요내용>

- 상환준비금에 대한 금리인하(6.5% → 2.5%)
- 신용예탁금 지급이자율을 여타 유사 상호금융기관 평균 수신금리 이하로 인하
- 부동산 매각, 출자금 증액 유도 등

○ 그러나 누적 결손금 과다에 따른 기회비용 및 수익구조 취약 등으로 자구노력에 의한 부실해소에는 한계

□ 중앙회의 누적결손금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않을 경우 시장 상황 악화시 중앙회 부실문제가 시장 전체리스크로 확대될 우려

○ 또한, 결손금 규모 확대로 신협측의 영업기반 약화시 주고객층인 서민,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서민금융 위축이 우려

□ 위와 같은 시장혼란 위험 등을 감안하여 신협측의 자구노력으로 해소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*하는 방안을 관계부처(예산처, 재경부)와 협의중

*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, 10년 거치 5년 분할상환

○ 지원액은 3년에 걸쳐 최대 3,000억원으로 하되 신협측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협측의 자구노력 성과를 보아 탄력적·단계적으로 지원

○ 정부 재정지원을 위해 신협측의 추가 자구계획을 요구

<신협측의 자구계획 주요 내용>

○ 상환준비금 지급금리 추가 인하

- 상환준비금 이자율을 추가 인하*(2.5% → 2.0%)하여 신용예탁금 회계의 결손 해소를 지원

* '01.8.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상환준비금 지급금리를 6.5%→2.5% 인하

□ 신용예탁금에 대해 실적배당제 도입·시행

- 신용예탁금에 대해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여 결손금 확대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중앙회는 수수료 수입 확보

* 중앙회는 실적배당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외부용역중

□ 단위조합의 중앙회 회비납부액 인상 및 중앙회 인력·조직 재조정 등 경영혁신 추진 등